

# 포인터

=>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는 변수.

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영역의 주소.

## 포인터 변수

=> 다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.

=> 형식: 자료형 \* 변수이름;

ex) `int * ptr;` ← 정수형 포인터 변수

`float * ptr;` ← 실수형 포인터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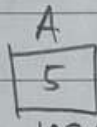
`char * ptr;` ← 문자형 포인터 변수

=>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메모리 주소이다.

ex) `int a = 5;`

`int * ptr;`

=>



`int * ptr;`

↳ 메모리상의 주소

=> 포인터의 주소를 선언할 때는 &를 사용한다.

ex) `&a` => a 변수의 주소

해당 주소의 값을 확인하는 법

\* 사용하기

ex) `int a = 5;` => 변수 선언

`int * ptr;` => 포인터 변수 선언

`ptr = &a;` => a 변수의 주소 (a의 주소를 ptr에 할당)

`printf("value of ptr is %d", *ptr);`

↳ a의 주소에 있는

값이다

함수의 구조.

ex) void func1(void)  $\Rightarrow$  함수의 이름 (함수의 이름)

{

printf("1");  $\Rightarrow$  함수의 바디 (함수 실행부)

}

$\Rightarrow$  (가변라임) (함수의 이름) (인자/variable)

ex) void star (int a) {

if (a == 1) {

printf ("안녕하세요\n");

}

if (a == 2) {

printf ("반갑습니다\n");

}

int main() {

printf ("hello world\n");

star(1);

star(2);

$\Rightarrow$   
실행

hello world

안녕하세요

반갑습니다

## 함수란?

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실행단위

→ 복잡하거나 앞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쓰일 것 같은 행동이나 동작이 있다면 함수로 만들어서 그 행동을 할 때 마다 함수를 사용.

ex) 우리가 자주 쓰는 `printf()` 로 실제 코드는 훨씬 복잡하게 생겼다.

## 함수를 만들 때 주의할 점

→ 하나의 함수에 모든 기능을 기술하지 않고, 각각은 독립적인 함수에 분리하여 기술하기.

◦ 예들 들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모든 기능을 담은 하나의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.

그렇다면 그 함수는

`main()` {

  보인 이름 입력코드

  보인 이름 출력코드

  계좌번호 입력코드

  계좌번호 출력코드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  ;

}

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텐데

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성하면.

- 함수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, 실행속도 느려짐

- 가독성이 떨어짐

- 오류가 있을 때 수정이 어려움

- 필수불가결한 모듈화 수 없음

등의 문제가 발생

따라서, 하나의 함수에 모든 기능을 기술하지 않고

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함수를 분리하여 기술하게 됨

기능별로 함수를 나누어 기술해야 하는 이유

→ 함수를 기능별로 나누어 기술하게 되면 함수 자체의 가독성을

만들기 쉬운 단순한 단계 기능

가독성 향상, 여러 모듈이 적용됨.

## 함수의 종류

→ 남이 만든 함수 ex) `printf()`, `scanf()`, `for()` . . .

내가 만든 함수



## 형 변환

⇒ 하나의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시켜 자료형을 같게 하는 것

변수 2개의 연산을 수행할 경우 사용

## 묵시적 형 변환

⇒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변환

데이터의 값을 잃지 않는 쪽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짐

char ⇒ short ⇒ int ⇒ unsigned ⇒ long ⇒ float ⇒ double

→  
형 변환이 일어나는 방향

ex) a가 정수형, b가 실수형인 경우

int a = 5

float b = 10.5, c;

c = a + b; ✖

⇒ 이런식으로 연산을 할 때 a는 실수형으로 자동으로  
동 변환이 일어나 a = 5.00 이 된다.

## 명시적 형 변환

⇒ 사용자가 강제로 형 변환을 시키는 것

연산의 앞에 ()를 붙이고, () 안에는 변환시켜주는 자료형 기호.

ex) float 형 변수 b를 int 형으로 강제 변환

⇒ float a = 7.55

float b = 13.57, c;

c = a + (int)b; → (int)b = 13

printf ("c = a + (int)b 의 결과는 %.2f 이다." f)

⇒ c = a + (int)b 의 결과는 20.55 이다.

int a=5;  
int b=10; ) => 변수선언

int \* ptr1;  
int \* ptr2; ) => 포인터선언

ptr1 = &a;  
ptr2 = &b; ) => 포인터에 a, b의 주소를 할당

printf("b-a=%d", \*ptr2 - \*ptr1);

↳ (ptr2에 있는 실제값) - (ptr1에 있는 실제값) => 10-5=5

=> 포인터는 +, -, ++, -- 를 이용해 연산이 가능하다.

배열과 포인터

=> 배열은 포인터를 이용해 제어 가능.

=> char arr[6] = {"hello"} 라는 배열이 선언되었다고 하면

배열의 이름인 arr 을 포인터에 대입할 수 있다

char \* ptr;

ptr = &arr[0]; => 배열 시작주소 대입

=> char arr[6] = {"hello"}

char \* ptr;

ptr = &arr[0];

printf("%c", \*ptr); => h

\* 주의해야 할 점 \*

포인터는 메모리 부양에서 조작이 되므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를 건드릴 수 있다

무엇이든 나쁜 것이라서 어떤게 표현되지 파악이 힘들다.